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어린이용 OPAC디스플레이의 분석

An Analysis of Children's OPAC Displays in Public Libraries in Korea

윤 정 옥(Cheong-Ok Yoon)*

〈 목 차 〉

- | | |
|------------------------|--|
| I. 머리말 | 3. OPAC 디스플레이의 중요성과 IFLA 'OPAC 디스플레이 지침' |
| II. 연구의 목적과 방법 | IV. 주요한 발견 |
|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1. 연구대상 도서관의 개요 |
| 2. 연구의 방법 | 2. 연구대상 OPAC의 특성 |
| III. 연구의 이론적 및 실제적 배경 | V. 맺음말 |
| 1. 선행연구: 어린이와 OPAC | |
| 2. 국내 공공도서관과 어린이용 OPAC | |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IFLA의 'OPAC 디스플레이 지침 (초안)'에서 제시된 38개 권장사항들을 중심으로 어린이 도서관의 OPAC 디스플레이를 검토하여, 디스플레이에 반영되는 OPAC의 기능성 및 검색과 관련된 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서울특별시립어린이도서관, 청주시립 도서관, 및 용산도서관 어린이도서관의 OPAC을 중심으로 검색화면의 구조와 검색방법, 간략 디스플레이, 레코드 정렬, 용어 및 명칭의 적절성, 및 서지 레코드 완전 디스플레이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대상 도서관 OPAC은 어린이의 요구와 행태를 반영한 기능성과 디스플레이를 제공하지 않았고, KOLAS 시스템의 전형적인 일반용 OPAC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보여주었다: 간략검색의 지나친 복잡성, 상세검색의 불필요한 검색 및 제한 기능 미작동 기능 도움말의 부재, 간략 디스플레이 및 소장정보의 복잡성, 도서관 전문용어의 사용, 목록 화면의 복잡성 등

주제어: 어린이도서관 OPAC, OPAC 디스플레이, 온라인목록, KOLAS 시스템, IFLA 지침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OPAC displays of three children's libraries in Korea: Seoul Children's Library, Cheongju Miracle Library, and Yongsan Public Library. 'OPAC Display Guidelines(Draft)' published by IFLA is used to examine the details of OPAC displays, and to suggest their improvement. Discussed are such topics as the features of basic and detailed search screens, the brief display of search results, the arrangement and full display of bibliographic records, and the use of terms and labels. All three libraries offer their users the same KOLAS' OPAC, only designed to serve general users rather than children, i.e., their primary user group. They show some weakness, and much improvement is urgently required to satisfy specifically the needs and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of children.

Key Words: Children's OPAC, OPAC Display, Online Public Access Catalog, KOLAS, IFLA Guidelines

* 청주대학교 인문대학 인문학부 문헌정보학 전공(jade@cju.ac.kr)

• 접수일: 2006년 5월 31일 • 최초심사일: 2006년 6월 1일 • 최종심사일: 2006년 6월 22일

I. 머리말

어린이들이 도서관의 목록(Online Public Access Catalog, 이하 OPAC이라 함)을 통해 정보를 탐색하고 자신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어른들과는 상이한 행태적 패턴을 갖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¹⁾ 해외 도서관계에서는 1990년대 초반 무렵 이용할 수 있는 OPAC들의 세대가 거의 전적으로 어른들을 중심으로 설계되었고, 어린이들의 특수한 요구와 능력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인식은 연구자들로 하여금 어린이들의 인지 발달단계와 선호도에 기반한 OPAC을 설계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게 하였다.²⁾

최근 월드와이드웹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미국이나 유럽의 주요한 공공도서관의 어린이 서비스 혹은 어린이도서관의 OPAC은 어린이 이용자의 정보요구와 정보추구행태에 대한 인식에 기반하여, 실제로 주된 이용자인 어린이들의 눈높이를 겨냥하여 설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용 통합도서관자동화 시스템 회사인 Innovative Interfaces사가 구축한 어린이용 OPAC을 사용하고 있는 미국 오하이오주 웨스터빌의 웨스터빌 공공도서관(Westerbille Public Library, <http://www.westervillekids.org/>)이나, 매릴랜드 주립대학의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실험실(University of Maryland, Human-Computer Interaction Lab.)이 운영하고 있는 국제어린이 디지털 도서관(International Children's Digital Library, ICDL, <http://www.icdlbooks.org/>)의 목록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상용 OPAC의 발전 초기 단계에 등장한 CARL의 "Kids' Catalog"가 표준 키워드 OPAC에 대한 프론트-엔드 인터페이스로서 널리 구현되었고, 어린이들로 하여금 포인트-엔드-클릭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주제계층을 탐색하고, 도서관의 물리적 지도에서 선택된 자료를 찾을 수 있게 하는 특성을 가졌던 것을 포함하여(Borgman et al. 1995),³⁾ 비교적 다양한 방법으로 어린이를 위한 OPAC을 제공하고 있다. 물론 모든 공공도서관이 어린이용 OPAC을 맞춤화하여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공도서관(<http://www.lapl.org>)처럼 어린이용 웹페이지(Kids Path)에서 바로 'LAPL Catalog'의 메인페이지로 들어가 일반용 OPAC을 그대로 검색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국내의 공공도서관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맞춤형 OPAC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공공도서관에서 어린이 서비스가 운영되어 오고, 서울특별시립 어린이도서관, 노원구립어린이도서관, 인표어린이도서관 등 소수의 어린이도서관과 더불어 느티나무도서관과 같이

1) Ute Kulper, Ursula Schultz, and Gabriela Will. "BUCHERSCHARZ -- A Prototype of a Children's OPAC." *Information Services & Use*, vol. 17, no. 2/3(1997), pp.201-215.
2) Christine L. Borgman, et al. "Children's Searching Behavior on Browsing and Keyword Online Catalogs: The Science Library Catalog Project."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vol. 46, no. 9(1995), pp.663-684.
3) 상계논문.

민간이 운영하는 소규모의 어린이도서관들이 있어왔지만, 이들 가운데 어느 도서관도 실제적 이용자인 어린이의 요구와 인지능력을 반영해서 특별히 개발된 어린이용 OPAC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이전에 경기도립도서관이 오름이 구축한 GOLDIS 시스템의 어린이용 OPAC 인터페이스를 따로 제공한 적이 있으나, 현재는 매우 간략한 형태로 된 검색입력창만 어린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2003년부터 순천, 서귀포, 제천, 청주 등 전국 열 한 곳에 기적의 도서관이 건립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공공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특히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⁴⁾ 어린이와 도서관의 장서가 만나는 접점으로서 중요성을 갖는 어린이용 OPAC 혹은 검색 인터페이스와 같은 핵심적 도서관 서비스 도구가 아직은 제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II. 연구의 목적과 방법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주요한 어린이도서관과 공공도서관 어린이 서비스용 OPAC 디스플레이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검토하고, 개선점을 제안하도록 하는 것이다. IFLA의 '어린이 도서관 서비스 지침'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공도서관의 어린이 서비스가 대상으로 하는 이용자층이 반드시 어린이로만 제한되지는 않는다.⁵⁾ 그러나 주요한 이용자층인 어린이의 특성과 이용편의성을 고려한 OPAC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은 재론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Blowers와 Bryan은 공공도서관에서 어린이를 위한 웹 사이트는 사실상 어린이뿐만 아니라 부모, 교사 및 그 밖의 보호자등 성인까지도 포함하는 모든 사람들을 고려해야 하지만, 일단은 일차적인 이용자 집단, 즉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여 웹 사이트를 설계하고, 차후에 그 밖의 집단의 요구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하였다.⁶⁾ 이들은 도서관에서 어린이를 위한 웹 사이트 전반을 설계하는 데 대하여 이 같이 제안하였지만, 도서관에서 가장 중요한 접근점이 되는 OPAC에도 동일한 생각이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아직 수가 많지는 않으나, 점차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어린이도서관이 어린이들 중심으로 한 이용자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OPAC이 어떤 기능과 특성을 지녀야 하는지 우선 그 디스플레이에 주목하여

4) 이용훈,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 확대전략으로서의 독서진흥운동 모색,” 2006년도 한국비블리아학회 발표논문집, 제14집 (2006), pp.99-119.

5) IFLA, Libraries for Children and Young Adult Section, Guidelines for Children's Libraries Services, 2003. <http://www.ifla.org/VII/s10/pubs/ChildrensGuidelines.pdf> [cited 2006.5.27]

6) Helene Blowers and Robin Bryan, *Weaving a Library Web: A Guide to Developing Children's Websites*,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04).

살펴보도록 하였다. OPAC의 검색 기능 자체를 직접 다루지는 않지만, 디스플레이 결정과 관련된 측면에서는 언급하도록 한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인 어린이도서관들 가운데 연구자가 임의로 선정한 세 개의 도서관, 즉, 서울특별시립 어린이도서관과 청주기적의도서관의 OPAC 및 공공도서관으로서 어린이용 검색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용산도서관의 어린이용 OPAC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각 OPAC의 특성을 검토하기 위해, 본 연구자가 임의로 정한 ‘살아남기’와 ‘해리 포터’ 등 몇 개의 키워드를 사용하여 검색을 수행하였고, 검색창의 구조와 검색방법, 기본탐색과 표목 디스플레이, 간략 디스플레이, 레코드 배열, 서지 레코드 디스플레이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OPAC 디스플레이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IFLA의 ‘OPAC 디스플레이 지침(초안)’(이하 ‘IFLA 지침’이라 부름)에서 제안된 38개 항목의 권장사항 가운데 현재 국내의 OPAC 현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항목들을 체크리스트로 구성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Ⅲ. 연구의 이론적 및 실제적 배경

1. 선행연구: 어린이와 OPAC

1990년대 초반, 미국 UCLA의 Borgman 등은 9세부터 12세까지의 어린이들 대상으로 한 과학 도서관목록(Science Library Catalog, SLC)의 네 버전을 갖고, 삼 년 간에 걸쳐 네 차례의 실험을 수행하여, 해당 연령의 어린이들이 보여주는 목록을 이용한 정보추구행태를 연구하였다. 이 목록은 키보드를 사용하지 않고, 하이퍼카드에 구축된 DDC-기반 브라우징 시스템으로 디자인되었다. Borgman 등은 당시 상업적 온라인 목록들이 어른을 대상으로 설계되었고, 어린이들로 하여금 초등학생 수준에서는 아직 갖고 있지 않거나,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야 겨우 발달되기 몇 가지 중요한 기술들을 사용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 같은 기술들은 예를 들어 타자, 키보드 사용, 철자(철자, 띄어쓰기, 어순) 및 어휘를 포함하는데, SLC를 두 개의 키워드 기반 온라인 목록(ORION과 로스앤젤레스 공공도서관의 LePAC)과 비교한 결과, 그 같은 기술이 더 많고, 컴퓨터를 더 익숙하게 사용하는 나이가 더 많은 어린이들이 탐색의 성공률이 높고, 더 빨리 탐색하며, 탐색 포기까지 지속하는 시간이 길었다. 또한 키워드 기반 목록은 철자의 변형이나 어려운 단어(예를 들어, tyrannosaurus)에 따른 탐색 실패가 빈번하게 발생됨을 알 수 있었다. 연구자들은 어린이

들이 사전의 훈련이 없이, 자신의 지식과 기술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고, 타자기술, 정확한 철자, 어휘지식, 알파벳순, 불리안 논리가 필요하지 않으며, 발견하기를 좋아하는 어린이들의 천성에 기초하여 강력한 탐색 메커니즘을 갖는 시스템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⁷⁾

한편 독일에서 Kulper, Schulz와 Will은 8-11세 사이의 어린이들을 위한 OPAC 프로토타입인 BUCHERSCHATZ을 개발하였다. 이들은 이전의 연구들을 리뷰하면서 발견된 결과로서 어린이들이 OPAC을 이용할 때 보여주는 특성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⁸⁾

접근

- 어린이들은 OPAC과 서가의 책들 사이의 관계를 잘 인식하지 못하므로 OPAC을 컴퓨터 게임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있다.
- 고려대상 연령층의 어린이들에게는(출판사는 말할 것도 없이) 저자가 접근 범주로 여겨지지 않는다.
- 어린이들은 명백한 정보요구는 말할 것도 없고, 무엇을 기대할지 명확한 생각을 갖고 도서관을 방문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자극과 제안을 필요로 한다.
- 어린이들은 탐색구문을 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 어린이들은 철자, 키보드 사용 및 주제표목의 리스트 훑어보기를 잘 하지 못한다.
- 어린이들이 탐색에 사용하는 단어들은 공식적 주제표목들과 상당히 다르다.
- 어린이들의 탐색에서 50% 가량은 100 가지 정도의 단순한 주제에 관련된다.
- 어린이들은(독일에서) 중앙화된 목록 서비스가 제공하는 것보다 구, 단순명사 및 구체적 용어들을 사용하고 이해할 것이다.
- 어린이들은 통상적 분류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 없다.
- 어린이들은 탐색을 계획하지도 않고, 레코드 필드를 제한하고, 탐색용어를 절단하거나 불리안 연산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전략을 사용하지도 않는다.
- 어린이들은 복잡한 접근 시스템에서 쉽사리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된다.
- 어린이들은 단지 몇 개의 결과만으로도 상당히 좋아한다.

도서 기술

- 어린이들은 스크린의 중앙에 집중한다; 그들은 많은 텍스트를 읽지 않는 경향이 있고, 비밀스런 상징들을 이해할 만한 참을성이 없다.
- 어린이들은 레코드가 자기들에게 무슨 관련이 있는지 결정하는 데 어려워한다; 그들은 그들

7) Borgman, et al. 전계논문.

8) Kulper, Schultz, and Will. 전계논문.

에게 제시된 전통적 서지기술과는 다른 정보를 요구한다.

- 상대적으로 어린이들은 전통적 서지 레코드에서 많은 불필요하고 혼란스런 정보를 본다.
- 독일의 중앙화된 목록 서비스가 제공하는 도서기술의 상당수는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단어를 사용한다.
- 도서기술은 지루하고, 따라서 읽기를 방해할 수도 있다
- 어린이들은 적합한지 알기 위해 단지 몇 개의 검색결과만을 훑어볼 뿐이다.
- 어린이들은 책의 서가표시를 식별하고, 서가에서 책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들은 이 같은 어린이들의 요구, 인지상태 및 행태에 근거하여 컬러 GUI를 갖는 BUCHERSCHATZ를 설계하면서 ‘책 보물’이라는 이 OPAC의 이름에 걸맞게,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일으키는 ‘보물찾기(treasure hunt)’라는 은유를 사용하여, 어린이, 캠프파이어, 보물상자와 같은 요소들을 포함하는 목록의 시각화면을 제공하였다. 이 목록은 어린이들로 하여금 키보드를 사용하지 않고, 마우스만으로 대략 150개의 분류로 구성된 3단계 분류체계를 따라가, 도서기술에 도달하도록 하였다. 분류기술은 추상적이거나 긴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해하기 쉽도록 하여, 예를 들어 ‘중세’라는 용어 대신 ‘기사와 성’과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 도서기술은 보물지도에 책의 표제, 하이라이팅 된 초록, 책의 유형정보(사실 혹은 소설) 및 저자명을 포함하였고, 아래쪽에 “Des Geheimzeichen zum Buch”(뜻: 책에 대한 비밀신호)라는 메시지와 서가표시를 주어, 어린이들이 서가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미국 메릴랜드 주립대학의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실험실이 구축한 국제어린이 디지털도서관(ICDL)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검색 인터페이스가 어떤 형태이어야 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이 도서관은 “어린이 자료를 원어로 선정, 수집, 디지털화 하고 조직하며, 3세부터 13세까지의 어린이들이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기술을 개발한다”는 사명을 갖고, 디지털 도서관을 구축하고⁹⁾, 어린이들의 연령층에 맞는 검색 인터페이스에 대한 일련의 연구를 수행하였다.¹⁰⁾ Hutchison, Bederson 과Druin은 초등학교 수준의 어린이들은 컴퓨터와 인터넷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집단에 속해있으므로, 이들을 지원하는 탐색과 브라우징 도구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어린이를 위한 인터페이스들의 상당수가 그들의 기술과 선호도를 적절히 고려하지 못함을 지적하였다. 연구자들은 네 개의 메릴랜드 초등학교에서 72명의 일학년생(6-7세), 삼학년생(8-9세), 및 오학년생(10-11세) 어린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ICDL의 검색용 카테고리 브라우저의 설계 선택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연구자들은 동시에 제시되는 플랫 카테고리 구조(*simultaneous*)

9) 미국의회도서관(LC), 미국국립과학재단(NSF), 칼/오스틴 재단(Kahle/Austin Foundation), 애도비 시스템 회사, 마클 재단(Markle Foundation), 옥타보(Octavo)사 등 도서관계 및 관련 재단 기업 등이 지원하였다

10) International Children's Digital Library(ICDL). Mission and Summary. 2005.
<http://www.icdlbooks.org/about/policies/mission.html> [cited 2006. 5. 29]

와 순차적으로 제시되는 계층적 카테고리 구조(*sequential*)의 인터페이스 이용을 비교하였다. 첫 번째 디자인은 카테고리의 절반에 도달하기 위해 페이징(*paging*)을 요구하였고, 두 번째 디자인은 모든 카테고리에 도달하기 위해 계층적 네비게이션을 요구하였다. 어린이들은 첫 번 실험에서는 한 아이터를 찾는 단순검색을, 두 번째 실험에서는 두 아이터를 찾는 불리안 검색을 각각 수행하였다. 어린이들은 불리안 탐색은 수행할 수 있으나, 카테고리 브라우저에서 사용되는 계층형 구조의 순차적 표현을 따르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다.¹¹⁾ 따라서 이 도서관은 이 같은 연구들에 기반하여 현재 매우 단순하고 직관적인 구조와 형태의 목록을 디자인하여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단순탐색(Simple Search)에서 표지의 색깔에 따라 빨강, 노랑, 파랑, 초록, 오렌지, 무지개 색 등의 버튼에 클릭함으로써 찾는다는지, 책의 길이에 따라 짧은 책, 중간 책, 긴 책 등으로 찾을 수 있게 한다. 또한 위치탐색(Location Search)에서 지구본의 위치에 클릭함으로써 특정 국가나 지역에 관련된 책을 찾을 수 있게 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살펴본 세 가지의 대표적 어린이용 OPAC은 각각 상이한 특성을 갖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어린이들의 인지능력, 직관, 발달상태 등을 반영하여, 목록 탐색이 재미있고 편리하도록 하며, 궁극적으로는 목록 자체가 독서에 대한 관심까지 아울러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¹²⁾는 공통점을 갖는다. 또한 공통적으로 각 OPAC의 개발 시에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어린이들로 하여금 특정한 자동화 시스템 사업체가 독점적으로 공급한 OPAC을 조금도 수정하지 않고 어른들과 더불어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국내 공공도서관의 현실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 국내 공공도서관과 어린이용 OPAC

앞 절에서 살펴본 어린이용 OPAC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내의 공공도서관에서 어린이를 위한 OPAC 혹은 목록 검색 인터페이스만이라도 제공되는지 보기 위하여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인천 등 주요 광역시 대표도서관의 웹 사이트를 방문하였다. 이들은 모두 KOLAS 계열 자동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 이들 가운데 어느 도서관도 어린이를 위해 맞춤형 OPAC을 제공하지 않았다. 도서관의 웹 사이트에서 '어린이도서관'과 같은 메뉴 항목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이 경로를 통하여 어린이들로 하여금 자료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무등, 사직, 산수도서관으로 구성된 광주광역시립도서관의 웹 사이트에 포함된 '어린이도서관' 웹 페이지(http://citylib.gwangju.kr/web/children01_1.htm)는 '어린이 열람실', '도서

11) H.B. Hutchinson, B.B. Bederson, and A. Druin. Interface Design for Children's Searching and Browsing. HCIL-2005-24 <http://hcil.cs.umd.edu/trs/2005-24/2005-24.html> [cited 2006. 5. 29]

12) Kulper, Schultz, and Will. 전제논문.

관 이용요령', '퀴즈박사', '어린이 문화강좌', '바른 독서습관', '추천도서', '자주 하는 질문', '알고 싶어요' 등과 같은 메뉴 항목 아래, 해당 서비스에 관한 도움말을 주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들이 자료를 찾을 수 있는 목록 검색 인터페이스를 따로 제공하지 않고, 도서관 홈페이지의 '소장자료검색'을 통해 자료를 찾도록 되어 있다. 거제 시립도서관 '어린이도서관'(<http://geojelib.go.kr/>) 도 마찬가지로 '이용시간', '책 빌리기', '소장자료' 등 어린이들에게 도서관 이용 및 현황에 관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강동도서관, 강남도서관 등 17개 공공도서관과 고덕평생학습관과 같이 평생학습관이라는 명칭을 갖는 5개관 등 모두 23개관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립공공도서관 시스템(<http://www.lib.seoul.kr/>) 가운데 도서관 웹 사이트에서 어린이실 혹은 어린이도서관을 위한 페이지를 제공하는 도서관은 단 네 곳이다. 도봉도서관의 '어린이도서관'은 단지 도서관이용법 등 서비스와 현황을 설명하고 있으며, 별도의 자료 검색을 허용하지 않는다. 동대문도서관의 '어린이실'과 마포평생학습관의 '어린이도서관'은 자료 검색을 허용하지만 역시 KOLAS의 디폴트 검색 화면을 제시할 뿐이다. 유일하게 용산도서관 어린이도서관(이하 '용산어린이도서관'이라 부름: http://www.yslib.or.kr/yslib/child_lib/)은 KOLAS 시스템에 기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구별된 인상의 어린이용 검색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밖의 다른 서울시립공공도서관들은 모두 일사불란하게 KOLAS 시스템의 전형적 목록 검색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뿐이다. 한편 KOLAS가 아닌 다른 자동화 시스템을 사용하는 노원어린이도서관과 부산여대 어린이도서관의 OPAC은 외형은 어린이를 위해 디자인 되어 있으나, 실제 기능은 일반용 검색 인터페이스와 같다.

2004년 현재, 전국의 487개 공공도서관 가운데 한국도서관협회에 자동화 현황을 보고했던 386개 공공도서관들 중 34개 기관이 KOLAS, 308개 기관이 KOLAS II를 사용하고 있다¹³⁾ 따라서, 사실상 국내 공공도서관은 KOLAS 계열 자동화 시스템의 독점체제 하에 있고, 여기서 살펴본 몇 개의 대규모 도서관들과 서울시립공공도서관들이 모두 KOLAS 계열 자동화 시스템의 목록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여타 중소규모 도서관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간주하고, 본 연구에서 일일이 검토하지 않기로 하였다.

3. OPAC 디스플레이의 중요성과 IFLA 'OPAC 디스플레이 지침'

미국 UCLA 도서관의 Yee와 Layne은 1990년대 말 이전까지 OPAC 혹은 목록의 이용에 대한 연구들을 리뷰하고, OPAC들이 역설적으로 "지나치게 복잡한 동시에, 충분히 복잡하지 않기 때문(both overly complex and not complex enough)"에 많은 이용자들이 현재의 OPAC 시스템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였다.¹⁴⁾ 이들은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OPAC에서 설정

13)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연감, 2005』(서울: 동협회, 2005).

해 놓은 디폴트에 상당히 의존하여, 기본적 탐색만을 수행하므로, 일반이용자들에게는 OPAC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고급 기능의 강력함과 다양성보다는, 기본적 기능이 어떻게 디스플레이 되는가, 얼마나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사용하기 쉬운가가 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캐나다 토론토대학의 Cherry와 동료들이 수행한 일련의 연구들도 OPAC의 서지 레코드 디스플레이에서 개선될 여지가 많이 있음을 발견하였다.¹⁵⁾

IFLA 'OPAC 디스플레이 지침'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OPAC에서 이용자의 이해와 편의성 증진을 위해서 디스플레이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2003년 9월 초안(draft)으로 공개되었고, 2005년 5월 확정되었다. 1997년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열린 IFLA 연례 컨퍼런스에서 IFLA 서지제어분과(Division of Bibliographic Control)는 서지 섹션, 목록 섹션, 분류와 색인 섹션, 및 정보기술 섹션의 회원들로 구성된 Task Force on Guidelines for OPAC Displays(이하 IFLA TF라고 함)를 구성하였다. 이 TF는 OPAC이 Online Public Access Catalog 라는 이름 그대로,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목록으로 충분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과 구조, 이용 방법과 디스플레이 등 모든 측면에서 일반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러기 위해서 특히, 디스플레이가 이용하기 쉽고, 이용자들로 하여금 목록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¹⁶⁾ 따라서 이 지침을 통해서 OPAC 디스플레이를 위한 권장사항을 제시하는 목적은 목록이 이용하기 쉽게 하고, 이용자들로 하여금 목록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 지침은 “목록정보의 디스플레이(the display of cataloguing information)”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기본적 전제조건은 OPAC 디스플레이가 목록의 기능과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도서관 이용자의 요구를 다루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목록의 기능은 이용자가 진술한 탐색기준에 맞는 자료를 탐색하기 위하여, 개체를 식별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요구에 맞는 개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그리고 기술된 개체를 획득하거나, 이 개체에

14) Martha M. Yee, and Sara Shatford Layne, *Improving Online Public Access Catalogs*,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98).

15) Joan M. Cherry, "Bibliographic Displays in OPACs and Web Catalogs: How Well Do They Comply with Display Guideline?" *Information Technology and Libraries*, vol. 17, no. 3(1998), pp.124-137; Joan M. Cherry, "Improving Subject Access in OPACs: An Exploratory Study of Conversion of Users' Queries."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vol. 18, no. 2(1992), pp.95-99; Joan M. Cherry, and Joseph p.Cox, "World Wide Web Displays of Bibliographic Records: An Evaluation." *Proceedings of the 24th Annual Conference of the Canadian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cience*, Totonto, June 1996, <http://www.fis.utoronto.ca/research/programs/displays/caispck1.htm> [cited 2006.5.20]; Joan M.,Cherry, et al. "OPACs in Twelve Canadian Academic Libraries: An Evaluation of Functional Capabilities and Interface Features." *Information Technology and Libraries*, vol. 13, no. 3(1994), pp.174-196.

16) IFLA Task Force on Guidelines for OPAC Displays, *Guidelines for Online Public Access Catalogue(OPAC) Displays* [Draft]: September 30, 2003. <http://www.ifla.org/VII/s13/guide/opacguide03.pdf> [cited 2005. 5. 5]

접근하기 위하여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이다.¹⁷⁾

이 지침에서 제시된 권장사항들은 A. 이용자 요구(User Principle, 1-4조), B. 내용과 배열 원칙(Content and Arrangement Principle, 5-7조), 및 C. 표준화 원칙(Standardization Principle, 8조)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 여덟 개 조목 하에 모두 3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지침은 이용자 요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료를 찾고, 식별하고, 선택하고 입수하는 데 있어서 레코드의 내용과 배열의 중요성을 수용하며, 정보내용과 구조를 위하여 인정된 국제표준을 따를 필요성을 존중한다는 세 가지 원칙에 근거하여 마련되었다.¹⁸⁾

본 연구에서 이 지침의 권장항목들을 어린이도서관 OPAC 디스플레이의 체크리스트를 구성하는 데 사용하는 이유는 이 항목들이 목록이 웹, 문자, GUI와 같이 어떤 종류의 인터페이스나 기술을 사용하든 상관없이, 모든 유형의 목록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안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구체적으로 디스플레이에서 사용될 색깔, 아이콘, 버튼, 풀다운 메뉴 등과 같은 세부사항들의 특성을 제안하기보다, 목록의 기본적 디스플레이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조건들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 지침에 대해서는 상용 OPAC 시스템의 특성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 영국 브래드포드대학의 BOPAC과 같이 주요 도서관들이 자체 개발한 OPAC들의 특성을 검토하지 않았고, 현재와 같이 빠른 속도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곧 변화될 잠재성이 큰 기능도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예를 들어, 이미 보편화된 스크롤바와 스크롤마우스를 이용함으로써 한 화면에 디스플레이 되는 서지 레코드의 수를 제한하지 않고, 검색된 많은 레코드의 아래위로 오르내릴 수 있다는 것 등이 이 지침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¹⁹⁾

한편 실제로 이 지침에서 특별히 어린이를 위한 OPAC 디스플레이에 대하여 언급한 항목은 4.1항이 유일하다. 이 항목은 도서관이 “상이한 이용자 집단 및/혹은 이용자 요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상이한 디스플레이를 제공해야 할 것(4.1항 ‘대안적 디스플레이 제공’)”을 제안하면서, 구체적으로 책의 표지 그림, 인기 있는 주제와 장르를 위한 시각적 아이콘, 큰 활자와 단순한 언어가 어린이 도서관에서 어린이들로 하여금 OPAC 찾기를 즐기도록 장려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항목은 어린이용 OPAC이 이래야 한다고 지적하기보다는, 동일한 디스플레이 방식이 대학도서관이나 그 밖의 일반이용자들에게는 적절하지 않게 보일 수도 있다고 언급할 뿐이다.

따라서 이 지침의 권장사항들을 사용하여 어린이용 OPAC에 고유한 어떤 구체적 디스플레이의

17) IFLA Group on the Functional Requirements for Bibliographic Records, 김태수 역, 서지 레코드의 기능상의 요건(서울: 국립중앙도서관, 2003), IFLA, UBCIM Publications -- New Series, vol. 19, 도서관업무전산화, 27.

18) 윤정옥, “국립중앙도서관과 미국의회도서관 OPAC 디스플레이의 비교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0권 1호(2006), pp.262-292.

19) Fred Ayres and Mick Ridley, Guidelines for OPAC Display: A Critical Appraisal, 2003.
http://staff.comp.brad.ac.uk/~bopac2/htdocs/Guidelines_OPAC_Display.html [cited 2005. 10. 27]

외형을 조목조목 구성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어린이도서관 OPAC 디스플레이가 일반적으로 어떤 특성을 가져야 하는지, 최소한 어떤 요구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하는지를 검토하고 제안하기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IV. 주요한 발견

1. 연구대상 도서관의 개요

본 연구에서 살펴본 서울특별시립어린이도서관(<http://children.lib.seoul.kr>, 이하 ‘서울어린이 도서관’이라 부름)은 1979년 5월 4일 세계 어린이의 해를 기념하여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에 최초의 어린이 전용 공공도서관으로 설립되었고, 2006년 4월 30일 현재 203,685종의 도서, 13,520종의 시청각자료 및 60여종의 정기간행물을 보유하고 있다. 충북 청주시 수곡동에 2004년 설립된 청주기적의 도서관(<http://www.cjmiraclelib.com>)은 2003년부터 전국 11개 지역에 설립된 기적의도서관들 가운데 하나로서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지만, 운영과 관리의 제반경비를 청주시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1981년 개관한 용산도서관은 2006년 3월 31일 현재 보유한 모두 24만여 종의 도서 가운데, 41,284종의 어린이도서를 포함하고 있다. 어린이용 장서의 규모가 특별히 방대하지는 않으나, 서울시립공공도서관들 가운데 어린이용으로 조정된 OPAC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유일한 도서관이다.

2. 연구대상 OPAC의 특성

가. 검색화면의 구조와 기능

(1) OPAC의 접근경로와 초기 화면의 구성

서울특별시립 어린이도서관 OPAC은 ‘도서관소개’, ‘도서관행사’, ‘이용자마당’, ‘책소개’, ‘자료찾기’, ‘자료연기’, ‘전시실’ 및 ‘새소식’으로 구성된 도서관의 메인홈페이지에서 ‘자료찾기’로 들어가 ‘자료검색’ 옵션을 클릭하면 떠오르는 <그림 1>과 같은 검색창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 ‘자료찾기’ 화면에서는 상단에 도서관 메인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메뉴가 다시 열거되고, ‘자료찾기’가 또한 하나의 선택항목으로 포함된다. ‘자료찾기’ 화면은 ‘자료검색’, ‘신착자료검색’, ‘서울공공도서관 통합검색’의 세 가지 옵션을 포함하고 있다.

통합검색-간략검색 - Microsoft Internet Explorer

자료검색

단순검색 상세검색 VOD검색 원문검색 CD검색

검색항목	검색어	검색조건
전체		AND
표제		AND
저자		AND
키워드		

원문정보 ☐ VOD ☐ 원문 ☐ CD

구분 전체자료 발행년도 부터 까지

자료형태 전체

족당출력건수 10 자료실 전체

T 다국어입력 명령어 검색 초기화

〈그림 1〉 서울어린이도서관 OPAC의 '간략검색' 화면

‘자료찾기’라는 용어가 ‘자료검색’으로 전환되었고, ‘자료검색’ 옵션 아래쪽에는 ‘자료검색시 “대출도서예약”은 실행되지 않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온다. 본 연구자가 2006년 4월 21일 접속했을 때에는 이 메시지가 화면에 나타나지 않았었다. 따라서 5월 29일에 나온 이 메시지가 도서관 자체 혹은 시스템 사정상 대출도서예약을 일시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인지, 대출도서예약이라는 기능이 아주 제공되지 않는다는 의미인지 알 수 없다. 어느 쪽에 해당되는 경우이든, 도움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IFLA 지침의 1.1항에서 스크린 디스플레이의 일관성을 권장하는 가운데, 활자체(fonts)의 일관성이 있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 화면에는 실제 텍스트의 양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굴림체, 돋움체, 한체, 및 등근헤드라인체의 네 가지 폰트가 사용되고 있다. 한 화면에 몇 가지 폰트가 사용되는 것이 적절한지, 또한 텍스트의 분량에 비례하여 어떻게 폰트가 분산되어야 하는지 등의 사항도 고려되어야 한다.

한편 청주기적의도서관은 도서관 메인페이지에서 ‘도서검색 하러가기’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검색 화면으로 가게 된다. 서울어린이도서관이 검색창을 따로 띄우고 있는 것과 달리 청주기적의도서관은 〈그림 2〉와 같이, 상단 메뉴바에 ‘처음으로’, ‘도서관안내’, ‘도서관 이모저모’, ‘우리고장 알아보기’, ‘책나라여행’, ‘마음나누기’, ‘도서관 프로그램’, ‘같이 가봐요’, ‘홈페이지 한눈에 보기’ 등의 옵션이 열거되고, 왼쪽에 로그인 창, ‘도서검색 하러가기’, ‘대출이력 반납연기’ 및 ‘도서관이용안내’의 링크가 제공되고 있다. 두 도서관 목록의 검색화면 크기와 구성은 KOLAS 시스템이 제공한 그대로 일치하지만, 청주기적의도서관은 화면 맨 위쪽의 도서관 사진과 로고까지를 포함하여, 상단과 왼쪽이 메뉴바로 둘러싸이고, 오른쪽은 공백상태에 메인페이지 스크롤바와 검색화면 스크롤바가 두 개 움직이도록 되어 있어, 다소 답답한 외형을 갖는다. 그밖에 검색창의 구조와 검색방법은 그대로 일치한다.



〈그림 2〉 청주기적의도서관 OPAC: '단순검색' 화면

용산어린이도서관은 〈그림 3〉과 같이 검색화면 상단에 '어린이실 소개', '자료찾기', '추천도서', '열린 교실', '묻고 답하기', '좋은 사이트'로 구성된 메뉴바가 있다. 왼쪽 옆에는 '자료 찾기'의 하위 메뉴 리스트인 '자료 찾기', '책 빌리는 방법', '빌린 책 연기', '희망도서신청'이 있고, 오른쪽 옆에는 '이용안내', 'e-러닝', 및 '찾아오는 길'의 링크가 있다. 이 목록의 검색화면도 상단과 양 옆이 메뉴바와 링크로 둘러싸여 있으나, 매우 단순한 구조의 검색창 하나만 열어주고 있어, 청주기적의도서관과는 달리 공간이 넉넉한 느낌을 준다. 그리고 예쁘다.

다음에서는 서울어린이도서관 OPAC을 검토한 결과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청주기적의도서관과 용산도서관 어린이도서관의 OPAC에 각각 특기할 사항이 있다면 보완하도록 한다. 또한 개별적인 분석항목에 대하여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공도서관, 뉴욕 공공도서관, 웨스터빌 공공도서관, 국제어린이 디지털도서관 등 몇 개의 도서관 OPAC에서 비교할 만한 사항을 참조로 기술한다.



〈그림 3〉 용산도서관 어린이도서관의 자료찾기 '단순검색' 화면

(2) 간략검색(단순검색)

서울어린이도서관에서 '자료검색'을 클릭하면, 검색창이 열리고 상단의 메뉴바에서는 단순검색, 상세검색, VOD검색, 원문검색, CD검색의 다섯 가지 옵션이 제공된다. 화면의 인터넷 주소란은 이창이 '통합검색-간략검색' 화면임을 보여준다. 이 '자료검색' 화면에서 '검색'의 종류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는 용어는 앞서의 다섯 가지 검색 옵션과 더불어 통합검색, 간략검색 등 모두 일곱 개에 이른다.

‘도움말’ 장치의 부재: 검색화면의 옵션인 각각의 검색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도움말’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어린이를 포함한 일반이용자들이 VOD 검색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지? 만약에 모른다고 해도, 목록 자체에서는 정보를 얻을 수 없다

IFLA 지침의 1.5항은 ‘도움말’ 장치를 제공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융통성 있는 도움말 스크린을 제공하고, 예를 들어 이용자가 탐색하고 싶은 필드에 구체적 설명을 제공하고, 탐색 결과가 없을 때 구체적 도움을 제공하는 등, 상황별 도움말 스크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어린이도서관의 OPAC은 아무런 도움말을 주지 않는다. OPAC의 이용방법, 검색 화면의 구조, 검색방법, 각 필드의 기능, 용어의 설명, 검색 실패 시의 에러 메시지 및 행동 제안 등 다양한 경우와 상황에서 도움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용어의 일관성: 한편 같은 화면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 단순검색과 간략검색이 같은 의미로 보이는데, 하나로 통일해야 할 필요가 있다. IFLA 지침 1.1항에서 스크린 디스플레이에서 용어(wording)의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간략검색의 간략성: 이 도서관의 ‘간략검색’ 화면은 실제로 그리 간략해 보이지는 않는다. 우선 ‘검색항목’ 입력창이 네 개가 주어지 있다. 첫째 입력창의 검색항목 디폴트는 전체이고, 풀다운 메뉴에서 아래 검색창에서도 제시된 표제, 저자, 키워드 및 발행자로 색인을 선택할 수 있다. 간략검색 화면에서 이처럼 여러 개의 검색 입력창을 제공하는 것이 반드시 편리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청주기적도서관도 아주 동일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웨스터빌 공공도서관의 어린이 서비스 웹 사이트에서 ‘빠른 목록탐색(Quick Catalog Search)’은 표제색인을 디폴트로 하여 한 개의 입력창을 제공하고, 저자, 주제, 키워드, 청구기호 및 ISBN으로도 찾을 수 있게 한다. Youth Services를 디폴트로 설정해 놓았지만, 전체 컬렉션, 어른 서비스, 미디어 서비스, 인터넷 사이트 등으로 검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뉴욕 공공도서관(<http://www.nypl.org>)의 목록인 LEO Catalog에서는 ‘기본탐색(Basic Search)’에서는 하나의 입력창만을 주고 있으나, 어린이용 탐색(Kids' Search) 화면에서는 어린이 표제, 어린이 주제, 어린이 자료--이름, 및 어린이 자료(모든 단어)의 네 개 입력창을 제공한다. 그러나 서울어린이도서관과 같이 다양한 제한 필드를 기본탐색에서는 제공하지 않고, ‘확장탐색(Expanded Search)’에 포함시켜주고 있다.

한편, 용산어린이도서관 OPAC의 ‘자료찾기’ 화면은 단순하다. 한 개의 입력창에서 검색항목은 전체, 제목, 지은이, 출판사로 설정할 수 있고, ‘찾기’를 클릭하여 검색을 시작할 수 있다. ‘상세검색’은 위에 제시한 검색항목이 열거된 입력창 네 개가 있고, ‘찾기’와 ‘지우기’를 할 수 있다. 상세검색에서 ‘단순검색’을 선택하면, 앞서의 ‘자료찾기’ 초기화면으로 돌아간다. 이 도서관은 다른 두 어린이도서관의 OPAC이 제공하는 것과 같이 다양하고 복잡한 기능, 메뉴, 옵션을 제공하지 않고, 단순검색이든, 상세검색이든 매우 기본적 탐색만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원문정보’ 필드명의 적절성: 서울특별시립 어린이도서관의 ‘간략검색’ 화면 중간 부분에 위치한 ‘원문정보’ 필드는 다시 VOD, 원문 및 CD의 옵션을 제공한다. 이들은 상단의 옵션과 중복되지만, 후자는 처음부터 매체 범위를 제한하는 검색화면을 새로 시작할 수 있게 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한편 ‘원문정보’라는 필드 명칭은 적절하지 않다. 원문정보가 VOD, 원문 및 CD를 포괄하지 않기 때문이다. VOD와 CD는 매체를 나타내는 명칭이며, 원문을 CD 데이터베이스에서 찾는다고 하는 의미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

‘자료형태’ 옵션의 적절성: ‘자료형태’ 제한 필드는 전체가 디폴트이지만 풀다운 리스트에서 일 반도서, 학위논문, 교과서, 학습서, 만화, 아동·청소년도서, 잡지, 신문, 비도서, 점자자료의 옵션을 제공한다. 어린이도서관의 장서에서 가장 비중이 높고, 이용빈도가 높은 것은 아동·청소년도서이므로, 리스트의 맨 윗부분에 이들이 배치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또한 실제로는 아동과 청소년의 자료수준이 다르므로, 어린이도서관에서는 이들을 분리하여 아동도서 및 청소년도서로 각기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 자료형태 구분이 MARC 레코드의 008필드(22, 코드 j)에서 가져온 것이라면, 실제로는 분리된 정보를 줄 수 없으므로, 차후에 다른 대안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필드명의 명확성: ‘쪽당 출력건수’는 10, 15, 20, 30의 옵션을 허용한다. 그러나 이것이 검색결과로 디스플레이 되는 레코드 건수를 말하는 것인지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 인쇄 시에 사용할 기능일 수도 있다는 인상을 준다.

‘다국어 입력창’의 필요성: ‘다국어 입력창’은 일본어, 한글고어, 러시아어 및 그리스어의 자판을 보여준다. 그러나 어린이도서관에서 과연 이 다국어 입력창이 필요할 것인가? 더욱이 러시아어나 그리스어의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도서관에서, 이처럼 전혀 사용될 가능성이 없는 기능을 붙여놓은 것은 도리어 군더더기가 될 뿐이다.

그 밖에 ‘구분’ 필드는 전체자료가 디폴트로 설정되어 있지만, 단행자료, 연속간행자료, 기사자료로 제한하여 찾을 수 있게 허용한다. 또한 화면 하단의 ‘명령어’를 클릭하면 검색식, 연산자, 필드명으로 구성된 입력화면을 제공한다. ‘초기화’ 버튼은 검색창의 입력내용을 지우고, 비워 주는 역할을 한다. 용산어린이 도서관은 ‘초기화’ 대신 ‘지우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3) 상세검색

상세검색 화면은 간략검색 화면에서 제공하는 네 개의 검색입력창과 더불어 표준부호, 분류부호, 한국대학부호, 한국정부기관부호, 학위논문(전공, 학과)라는 다섯 개의 검색 및 제한 입력창을 제공한다. 또한 간략검색 시 제공된 원문정보, 구분, 발행년도, 자료형태, 쪽당 출력진수, 자료실 제한 필드와 함께 본문언어, 요약문언어 제한 필드가 포함되어 있다.

상세검색의 상세성 : 앞 절에서 간략검색이 얼마나 간략해야 하는가를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상세검색이 얼마나 상세해야 하는가 하는 점에도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우선, 어린이도서관에 한국대학부호, 한국정부기관부호 및 학위논문이라는 속성이 적용되는 자료가 얼마나 비치되어 있는지, 이 같은 정보에 근거하여 자료를 요구하는 이용자가 얼마나 있을 것인지, 따라서 이러한 검색필드가 필요할 것인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상세검색이라고 해서 지나치게 상세한 기능을 붙여놓은 것은 오히려 목록의 편의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표준부호’와 ‘분류부호’의 옵션 : ‘표준부호’는 ISBN이 디폴트로 설정되어 있지만, ISSN, CODEN, STRN(표준기술보고서번호), RNSTRN(보고서번호), 국가서지번호, 저작권등록번호로도 찾을 수 있게 한다. 그러나 필드 자체에 대한 도움말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상이한 부호 혹은 번호들에 대해서도 아무런 설명이 없다. 어린이도서관에서 ISBN이나 ISSN 이외의 보고서 번호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보고서에 해당하는 자료들이 얼마나 소장되어 있고 이용되는지 알 수 없다. 또한 ‘분류부호’는 KDC, DDC 및 LC의 옵션을 제공하지만, 이 도서관에서는 KDC만 사용하므로 DDC와 LC의 옵션은 의미가 없다. 이처럼 특정한 검색 혹은 제한 필드 안에서 제공되는 옵션의 다양성을 해당 도서관의 특성에 따라 조정하여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정부기관부호’와 ‘한국대학부호’의 필요성 : ‘한국정부기관부호’와 ‘한국대학부호’는 검색의 범위를 제한하는 역할을 할 것이 기대된다. 이 부호들의 검색을 시도할 경우, 영문코드의 알파벳순으로 정렬된 기관명 리스트창이 생성된다. 기관의 명칭은 무작위로 배열되었고,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특정한 기관을 찾으려면, 리스트 상단의 ‘검색어’ 입력창에 입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정부기관부호’ 리스트에서 국립중앙과학관(CC), 국립과학수사연구소(DD), 국립중앙도서관(HD)이 각각 알파벳의 C, D, H 등의 위치에 분산되어 있다. ‘검색어’ 입력창에서 ‘국립’을 입력하면 이 단어를 포함한 이름들의 서브리스트가 생성되지만, 역시 코드의 알파벳순으로 정렬될 뿐이다. 코드 리스트에서 사용하는 기관명을 정확히 입력하지 않으면 바로 찾을 수 없다. 기관명의 가나다순으로 정렬하여, 이용자들이 명칭을 브라우징 하고 찾을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이 ‘한국정부기관부호’의 용도를 시험하기 위하여 영문코드가 부여되지 않은 ‘국립경주박물관’을 선택하고, ‘전체’ 검색창에서 ‘경주’를 입력하였을 때 ‘위렌의 신나는 당근경주’, ‘(강석경의) 경주산책’ 등 22건의 검색결과를 얻었다. 검색된 서지 레코드들의 어디에서도 ‘국립경주박물관’과 관련된 내용이 보이지 않았고, MARC 보기에서도 이 코드가 적용된 필드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

다. ‘국립경주박물관’이라는 기관부호로 제한하지 않고, ‘경주’로 탐색한 결과도 마찬가지로 22건의 레코드가 검색되었다. 이 같은 결과로 보아, 이 ‘한국정부기관부호’의 검색제한은 작동하지 않는 기능일 수도 있는 것으로 보였다.

마찬가지로 가장 흔한 단어 중의 하나인 ‘한국’을 ‘전체’ 검색창에 입력하고 ‘한국대학부호’로 ‘고려대학교’를 선택하여 탐색한 결과는 0건 검색이었다. 그러나 ‘전체’로 ‘한국’을 검색한 결과로는 무려 8,152건의 레코드가 검색되고, 결과 내 검색을 위해 ‘고려대학교’를 입력한 결과로 고려대학교 출판부, 고려대학교 한국곤충연구소 등에서 나온 13건의 레코드가 검색되었다. 따라서 ‘한국대학부호’를 사용한 검색 제한 역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본문언어’와 ‘요약문언어’의 필요성: 본문언어와 요약문언어는 전체가 디폴트로 설정되어 있지만, 각각 한국어어를 비롯하여, 영어,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러시아어, 스페인어의 여덟 개 언어들의 옵션이 제공되고 있다. 우선, 앞 절의 한국대학부호나 한국정부기관부호, 학위논문 등의 제한필드의 필요성에 대한 의구심과 같은 맥락에서, 여기 열거한 바와 같은 여러 나라 언어들로 본문 혹은 요약문이 제공된 자료가 이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지, 그것으로 찾는 이용자가 있는지, 특히 어린이 이용자들에게 필요할 것인지 등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역시 이 제한 필드의 작동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표제’로 ‘한국’을 입력하고, 본문을 ‘한국어’로 설정하여 탐색한 결과로 아무 레코드도 검색되지 않았다. 다시 ‘저자’로 ‘Carle’(에릭 칼)을 입력하고, 본문을 ‘영어’로 설정하여 탐색한 결과, 역시 아무 레코드도 검색되지 않았다. 이 도서관에 소장된 에릭 칼의 책들 가운데 본문이 영어로 된 것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시 ‘저자’로만 ‘Carle’을 탐색한 결과는 39건의 레코드가 검색되었고, 번역본이 아니라 영문으로 된 *Brown Bear, Brown Bear, What Do You See?*가 두 권(1991, 1995) 검색되었다. 다시 말하면, 실제로 이 목록에서 본문언어로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어린이도서관에서 필요하지도 않고, 작동하지도 않는 여러 개의 제한 필드들이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나. 검색방법과 간략 디스플레이

(1) 검색방법

검색방법에서 ‘전체검색’은 키워드, ‘표제검색’은 전방일치, ‘키워드’는 표제(MARC의 245 필드)와 총서사항(MARC의 440필드)에서 뽑은 키워드 리스트(MARC의 653필드)에서 나온 결과를 가져온다. 한 단어로는 검색할 수 있다. 그러나 <표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각 검색창 안에서 불리언 연산기호를 사용한 두 단어 이상의 조합검색은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칼’로 ‘전체검색’ 할 경우, 142건의 레코드 가운데에는 표제, 저자, 총서사항 등의 필드에서 ‘칼’, ‘칼의 노래’, ‘칼로리 핸드북’, ‘일곱자루 칼...’과 같이 서명에 ‘칼’이 포함된 레코드, 에릭 칼 리처드 칼슨과 같이 저자 이름의 부분에 ‘칼’이 포함된 레코드들이 있다. 그러나 ‘전체’ 입력창에 ‘칼’ and ‘노래’를 입력하면, 아무 레코

드가 나오지 않는다. ‘사막’ and ‘살아남기’로 탐색한 결과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표제’로만 탐색한 결과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전체’ -- ‘칼’ and ‘표제’ -- ‘노래’로 탐색한 경우에는 에릭 칼의 ‘노래가 보여요’라는 단 하나의 레코드가 검색되고, 김훈의 ‘칼의 노래’는 검색되지 않았다.

〈표 1〉 서울어린이도서관 OPAC: 검색방법별 레코드 수

	칼	살아남기	해리포터	사막 & 살아남기	칼 & 노래
전체	142	23	41	0	0
표제	28	0	39	0	0
키워드	8	23	25	0	0
저자	110	x	x	x	x

(2) 검색결과의 간략 디스플레이

IFLA 지침의 5조는 ‘이후의 행동을 위해 요구되고 필요한 것을 디스플레이 하라’고 강조한다. 5.1항은 ‘탐색의 유형에 따라 서지 레코드, 전자 레코드 혹은 색인을 디스플레이 하라’고 한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레코드 내 키워드 탐색(keyword-within-record search)을 위해서는 단일 서지 레코드를 디스플레이하거나, 하나, 여러 개, 혹은 모든 레코드의 선택을 허용하면서, 의미 있는 순서로 서지레코드들을 간략 디스플레이 할 것을 권장한다.

간략검색 화면에서 ‘전체’로 ‘살아남기’를 입력한 결과는 〈그림 4〉에서 보는 것처럼 ‘아마존에서 살아남기’,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등 모두 23건의 레코드를 가져왔다. 이 검색결과목록에서 보여주

선택	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	발행년도	청구기호	자료실	자료구분	초록	목차	콘텐츠
<input type="checkbox"/>	1	아마존에서 살아남기	최덕희 글; 강경효 그림	아이세움	2005	404-스236 o-2	제2자료 실	아동도 서			
<input type="checkbox"/>	2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최덕희; 강경효 [같이]지 음; 강경 효 그림	아이세움	2002	404-스236 o	제2자료 실	일반도 서			
<input type="checkbox"/>	3	빙하에서 살아남기	최덕희 글; 강경 효 그림	아이세움	2003	404-스236 o-4	제2자료 실	아동도 서			
<input type="checkbox"/>	4	사막에서 살아남기	최덕희; 강경효 그림	아이세움	2002	404-스236 o	제2자료 실	일반도 서			
<input type="checkbox"/>	5	시베리아에서 살아남기	코믹컴 글; 정준 규 그림	아이세움	2003	404-스236 o-8	제2자료 실	아동도 서			
<input type="checkbox"/>	6	초원에서 살아남기	코믹컴 글; 정준 규 그림	아이세움	2003	404-스236 o-6	제2자료 실	아동도 서			

〈그림 4〉 서울어린이도서관: ‘전체’ -- ‘살아남기’의 검색결과 목록(일부)

는 간략 디스플레이는 “논리적 순서와 제한된 수의 속성들로, 단일 표목 아래 모든 서지나 전거 레코드들을, 혹은 서지 레코드나 전거 레코드들의 키워드 탐색에 일치된 모든 서지나 전거 레코드들을 열거하는 디스플레이”라고 정의된다.²⁰⁾ 간략 디스플레이에서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간략성 혹은 ‘필요한 최소한의 데이터’ 수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문제일 것이다.

탐색용어 디스플레이: 간략 디스플레이에는 처음의 검색화면 ‘쪽당 출력건수’에서 디폴트로 설정된 대로 10개의 레코드가 열거되어 있다. 상단에는 검색 메뉴바가 있고, 목록 바로 위에 ‘전체: 살아남기’로서 이 검색에서 사용된 색인과 탐색용어를 디스플레이하고 있다. 또한 서지정보 디스플레이 내에서 탐색용어 ‘살아남기’를 하이라이팅 함으로써, 결과의 검색 근거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방식은 IFLA 지침의 1.2항에서 ‘어떻게 디스플레이에 도달했는지 이용자들에게 명백하게 하라’고 하며, 탐색용어를 맥락 안에서 보여주고 강조하라고 권장한 것과 일치한다.

IFLA 지침 1.1항에서 ‘텍스트 데이터를 입력한 대로 디스플레이 하라’고 하며, 철자뿐만 아니라, 띄어쓰기, 대소문자도 입력한 그대로 보여주라고 한다. 그러나 이 목록에서 ‘저자’로 ‘carle’을 입력한 경우, 간략 디스플레이에는 ‘저자: CARLE’처럼 대문자로 변환된 형태로 탐색용어가 나타난다. 한편 용산어린이도서관은 간략 디스플레이와 서지 레코드 어디에서도 탐색용어를 보여주지 않는다.

용어의 일관성: 이 OPAC에서는 서명과 표제, 발행자와 출판사 등의 용어가 같이 사용되고 있다. 검색창에서는 표제와 발행자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한편, 검색결과목록의 서지정보에서는 서명과 출판사라는 용어가 각각 사용되고 있다. 또한 분류부호와 분류기호도 혼용되고 있다. 한편 ‘자료구분’ 필드는 간략 디스플레이에서는 아동도서, 일반도서, 아동, 청소년 컴퓨터 파일 등의 구분을 포함하고 있는데, 검색창에서는 단행자료, 연속간행자료, 기사자료로 구분된다. 이 검색창 옵션의 내용은 검색결과목록의 상단에서 다시 볼 수 있다. IFLA 지침은 용어 및 명칭의 일관성은 중요한 디스플레이 조건들 가운데 하나임을 강조한다.

서지요소의 범위: 〈그림 4〉에서 보는 검색결과목록의 간략 디스플레이는 레코드 선택 칸과 더불어(레코드) 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 발행년도, 청구기호, 자료실, 자료구분, 초록, 목차, 콘텐츠를 포함하는 열두 개의 필드로 구성된 서지정보를 보여주고 있다.

간략 디스플레이의 목적은 탐색자들로 하여금 그 목록을 보고, 특정한 자료에 대하여 보다 더 정보를 얻기 위하여 클릭할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서지요소들을 디스플레이 할 것인가는 도서관이 결정해야 한다. 이용자들이 보통은 일단 완전서지 레코드를 보고서야, 그들이 실제로 그 자료를 요청할지를 결정하도록 도울 수 있는 정보를 필요로 하므로, 간략 디스플레이에 포함될 정보의 내용은 완전서지 레코드의 것과는 달라질 수 있다.²¹⁾ IFLA 지침은 5.3항 ‘간략

20) IFLA Task Force on Guidelines for OPAC Displays, 전거서.

21) A. Paula Wilson, *Library Web Sites: Creating Online Collections and Services*, (Chicago: American Library

디스플레이로 레코드 디스플레이'에서 '...레코드들의 간략 디스플레이는 이용자가 세트의 요소들 사이에 구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데이터 세트를 제공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레코드 선택 칸을 제외한 열한 개의 서지요소들이 간략 디스플레이의 기능 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보강된 콘텐츠’ 필드: 초록, 목차, 콘텐츠와 같이 OPAC에서 ‘보강된 콘텐츠(enriched content)’²²⁾를 나타내는 필드가 간략 디스플레이에 포함될 필요가 있는가? 예를 들어, 로스앤젤레스 공공도서관 OPAC의 간략 디스플레이는 레코드 선택 칸과 더불어 서명, 저자명, 청구기호, 그리고 표지의 사진을 보여준다. 목차, 리뷰, 등장인물 분석, 주석 등 Syndetic Solutions사가 제공하는 보강된 콘텐츠의 포함 여부는 일단 개별 서지 레코드 디스플레이에 들어가서 알 수 있고, 필요하면 클릭하여 볼 수 있게 한다. 검색 디스플레이의 어느 시점에서 보강된 콘텐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좋은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간략 디스플레이의 간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포함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 더욱이 실제로 검색된 어느 레코드도 이 같은 보강된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 모든 필드들이 빈 칸으로 남겨져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럴 것이다.

필드의 공간 구성: 한정된 크기의 화면에 열한 개의 서지요소를 배치하면서, 필드의 공간구성이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자료실’ 필드와 ‘자료구분’ 필드가 그렇다. ‘자료실’ 필드는 네 글자가 들어갈 수 있으나, 데이터 ‘제2자료실’을 ‘제2자료#실’로 띄어 두 줄로 보여준다. ‘자료구분’은 세 글자가 들어갈 수 있어, 필드명을 ‘자료구#분’, 데이터 ‘아동도서’를 ‘아동도#서’의 두 줄로 보여준다. ‘제2#자료실’, ‘자료#구분’, ‘아동#도서’와 같은 방식으로 필드명과 데이터에 적절한 띄어쓰기를 사용하면 훨씬 보기 좋을 것이다.

한편 용산어린이도서관은 이를 일부 조정하였다. 이 목록의 간략 디스플레이는 선택 칸, (레코드) 번호, 제목, 저자, 출판사, 발행년도, 청구기호, 자료실, 자료구분, 목차, 콘텐츠의 열한 개 필드로 구성된다. 기본적으로는 다른 두 도서관과 같은 구조이지만, 초록 필드를 넣지 않아 그만큼의 여유 공간이 생겼고, ‘자료구분’ 필드에서 데이터를 ‘아동#도서’와 같이 적절히 띄어쓰기 해 주고 있다. 그러나 사실 간략 디스플레이 필드 구조 자체를 조정하지는 않고, 필드명의 프레임만을 따로 만들어 주면서, 필드명과 데이터의 위치가 다소 어긋나는 인상을 주게 되었다.

화면의 이동: 간략 디스플레이에서 화면의 이동은 목록 맨 아래쪽에 First, ←, →, Last로 구성된 네 개의 버튼이 있고, 전체 화면 수에서 해당 화면의 번호를 2/12와 같이 보여주며, ‘이동’ 버튼을 클릭하도록 하고 있다. 용산어린이도서관은 같은 기능을 맨앞, 이전, 다음, 맨뒤로 표현하고 있다. IFLA 지침의 5.5항은 많은 레코드가 검색될 경우, 리스트의 어디에든 위치할 수 있게

Association, 2004).

22) Marshall Breeding. "Integrated Library Software: A Guide to Multiusers, Multifunction Systems." *Library Technology Reports*, vol. 40, no. 1(2004), pp.1-88.

디스플레이를 제공하라고 권장한다. 따라서 검색 세트의 중간부분으로 오고갈 수 있도록, 페이지 번호를 열거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분류부호'로 '404'를 검색한 결과는 339건의 레코드를 가져오는데, 이 결과목록 전체를 검토하려면 쪽당 디폴트로 10건의 설정된 상태에서 34개의 화면을 검토해야 한다. 이럴 경우, 1, 2, 3... 과 같이 화면위치를 제시해 주면 편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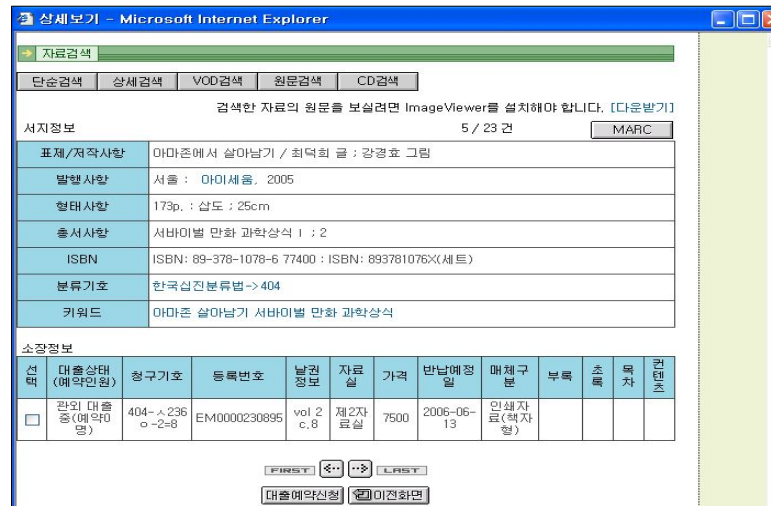
(3) 레코드 정렬

간략 디스플레이는 '정렬안함'을 디폴트로 설정하고 있으나, 이용자가 정렬할 수 있는 옵션을 모두 열두 가지 제공한다: 서명 오름차순, 서명 내림차순, 저자 오름차순, 저자 내림차순, 출판사 오름차순, 출판사 내림차순, 발행년도 오름차순, 발행년도 내림차순, 자료실 오름차순, 자료실 내림차순, 분류기호 오름차순, 분류기호 내림차순. 이 같은 정렬 옵션은 세 도서관의 OPAC에서 모두 동일하게 주어진다.

일단 이 간략 디스플레이를 특정한 옵션으로 정렬한 후, 정렬의 두 번째 요소는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예를 들어, 서명오름차순으로 정렬하면 '아마존에서 살아남기' 다섯 권이 '아마존에서 살아남기, 2-2', '아마존에서 살아남기, 2-1', '아마존에서 살아남기' 2005, 2002, 2001 순으로 정렬되고, '사막에서 살아남기' 두 권은 2002-2005순으로 정렬된다. 동일한 서명에서 저자명이나 발행년도 둘 다 두 번째 정렬요소가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IFLA 지침은 6조에서 '여러 레코드들이 검색될 때 무작위가 아니라 의미 있는 순서로 레코드들을 디스플레이 하라'고 하며, 그 가운데 6.3항은 '모든 간략 디스플레이에서 표목의 첫째 요소에 의하여 표목을 배열하라.(만약에 있으면) 표목의 두 번째 요소는 동일한 첫째 요소로 시작하는 표목들을 하부배열하기 위해서만 사용하라. 추가적 요소들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라'고 제안하고 있어, 정렬에서 첫째 요소 이후의 요소들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한다.

참고로, 로스앤젤레스 공공도서관 OPAC에서 키워드로 harry potter를 탐색한 결과는 모두 212건의 레코드를 가져오고, 이들은 발행년도의 내림차순으로 정렬되어 있다.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정렬의 옵션은 저자명, 서명, 청구기호로 알파벳순이다. 역순으로 정렬할 수는 없다. 뉴욕공공도서관 OPAC은 다소 특이한 방식으로 정렬할 수 있게 한다. 역시 harry potter로 키워드 탐색한 결과는 230건의 레코드를 가져왔고, 디폴트는 정렬하지 않음 (none)이지만, 이용자에게 제공된 정렬 옵션은 서명·저자·발행년도순, 저자·서명·발행년도순, 발행년도·서명·저자순, 청구기호·저자·서명순으로 첫째, 둘째 및 셋째 정렬요소까지 식별해 주고 있다.



〈그림 5〉 서울어린이도서관 OPAC: 〈아마존에서 살아남기〉의 서지 레코드



〈그림 6〉 미국 뉴욕 공공도서관 OPAC:
수치탐색-청구기호-404 브라우징 리스트(일부)

수치탐색의 결과 정렬: '분류부호'와 같이 수치로 탐색할 경우(numeric search), 옵션으로 제공되는 '분류기호 내림차순'이나 '분류기호 오름차순'으로 우선 정렬되도록 디폴트로 설정해 주면 편리할 것이다. 예를 들어, 뉴욕 공공도서관은 기본탐색, 확장탐색과 따로 수치탐색을 구분하여, 청구기호(Call Number), ISBN/ISSN, LCCN, SUDOC 정부분서번호, 출판사번호: 음악 & 비디오, 자료 바코드, Dynix 번호로 탐색할 수 있게 한다. 이 목록에서 청구기호 -- 404로 탐색한 결과인 브라우징 리스트는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기호를 첫째 정렬요소로 하고, 서명과 서명수를 보여준다. 즉, 검색 대상인 서지요소를 맨 앞으로 배치하였다.

대규모 검색 결과: IFLA 지침 5.5항은 대규모 검색 세트의 디스플레이에 대한 권장사항이다. 검색된 레코드들의 수가 많을 때, 예를 들어, 매 n번째 표목을 디스플레이 하여 긴 표목이나 간략 디스플레이를 요약해 준다든지, 리스트의 어디에든 위치할 수 있고, 리스트의 시작 부분이나 특정 표목들의 디스플레이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제안한다. 앞에서 '분류부호' -- '404' 검색으로 나온 정렬되지 않은 339건의 레코드를 쪽당 출력 10건으로 보면 34 페이지를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최대 출력 옵션인 30건으로 설정해서 보려고 하면, 검색결과목록 안에서는 디스플레이 건수를 다시 설정할 수 없다. '결과내 검색'은 표제, 저자, 키워드, 발행자로만 할 수 있을 뿐이다.

다. 서지 레코드의 상세 디스플레이

여기에서 서지 레코드의 상세 디스플레이(Detailed display)는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서지나 전거 레코드의 모든 속성을 보여주는 디스플레이'라고 정의된다. 이를 확장 디스플레이, 완전 레코드 디스플레이, 완전 디스플레이라고도 하며, 간략 디스플레이와 대조되는 개념으로 본다.²³⁾ 서지 레코드의 상세 디스플레이는 여러 개의 레코드를 포함하는 검색결과목록의 간략 디스플레이에서 특정한 레코드를 선택했을 때, 혹은 탐색 결과로 단일 레코드만 검색되었을 경우에 바로 디스플레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서지정보의 완전성: IFLA 지침은 5.8항 '서지 레코드의 단일 레코드 디스플레이 내용과 구조'에서 디폴트 단일 레코드 디스플레이에서 단일 서지 레코드를 위해서는 완전한 디스플레이(full displays)를 사용하라고 한다. 이는 이용자에게 필요한 코드화(coded) 및 비코드화(non-coded) 필드들을 포함하고, ISBD로 규정된 모든 필드들을 포함하라고 하였다. 또한 보통 디폴트로는 ISBD 포맷으로 디스플레이 되면서, 각 요소에 내재한 데이터를 갖는 필드 명칭이 부여된(labeled) 디스플레이를 선호하라고 권장하고 있다. 물론 도서관의 유형에 따라, 더 간략한 디스플레이를 제공할 수도 있게 한다. 또한 이용자로 하여금 전체 세션을 위해서, 혹은 한번의 행동을 위해서 단일 디스플레이의 포맷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 개의 옵션을 제공하도록 권장한다

서울어린이도서관의 OPAC은 서지정보와 소장정보로 구성된 단일 레코드 디스플레이를 보여준다. <그림 5>에서 보는 것처럼, 서지정보부분은 표제/저작사항, 발행사항, 형태사항, 총서사항, ISBN, 분류기호, 키워드 필드로 구성되어 있고, 각 필드 내에 ISBD 포맷에 따라 서브필드 요소들을 디스플레이 하고 있다. IFLA 지침의 5.7항에서 '단일 레코드 디스플레이는 이용자로 하여금 자원에 접근/입수할 수 있게 하는 데이터를 포함하여, 목록의 기능을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포함해야 한다'고 한 것처럼, 이 서지 레코드 디스플레이는 이용자들에게 충분한 서지정보를 주고 있다.

한편 IFLA 지침 1.4항은 코드화된 데이터와 분류기호를 디스플레이 하는 경우엔 확장하라고 지

23) IFLA Task Force on Guidelines for OPAC Displays. 전게서.

적하면서, 분류기호는 가능하면 인터페이스에서 사용되는 언어로 그 기호에 대해 말로 된(verbal) 대응어를 디스플레이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림 5>의 디스플레이에서도 분류기호 404가 한국 십진분류법에서 나왔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주제를 의미하는지 적절한 대응어를 제시해 주면 이용자들이 분류기호와 주제의 의미 및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서지정보 용어 및 필드 명칭의 적절성: 이 서지 레코드 디스플레이에 사용된 표제/저작사항, 발행사항 등의 필드 명칭들은 한국목록규칙(KCR)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서관 전문용어의 표준형태이다. IFLA 지침 1.6항은 ‘이용자들이 도서관 전문용어와 표준에 익숙하다고 추측하지 말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것은 이용자들이 예를 들어 메뉴, 명칭, 구두점, 레코드 정렬 및 도움말스크린에서 도서관 전문용어와 표준에 익숙하다고 추측하지 말라, 전문용어(jargon)를 회피하라고 한 데서도 분명하게 나타난다. FRBR에서는 목록에서 서지 레코드 이용자는 도서관 이용자와 직원뿐만 아니라, 발행자, 배포자, 소매상 및 전통적 도서관 환경 이외의 정보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도 포괄하는 넓은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는데,²⁴⁾ 이 어린이도서관 OPAC의 일차적 이용자 집단일 어린이들, 그리고 그 밖의 이용자들이 이렇게 사용된 용어들과 ISBD 포맷, 구조 등을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는 한번쯤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소장정보: 소장정보는 선택 칸과 더불어, 대출상태(예약인원), 청구기호, 등록번호, 날권정보, 자료실, 가격, 반납예정일, 매체구분, 부록, 초록, 목차, 콘텐츠의 열두 개 필드로 구성되어 있고, 과연 이 모든 데이터가 다 필요한 것인가에 의문을 갖게 된다. 서지정보에 이미 이 책의 서지적 특성 및 내용에 관한 정보가 다 주어져 있는데, 매체구분, 부록, 초록 등의 정보가 필요할 것인가? 또한 관리정보에 보다 가까운 가격이나 등록번호, 날권정보가 필요할 것인가? 다른 도서관들의 예를 보면 훨씬 간략한 수준의 소장정보를 제공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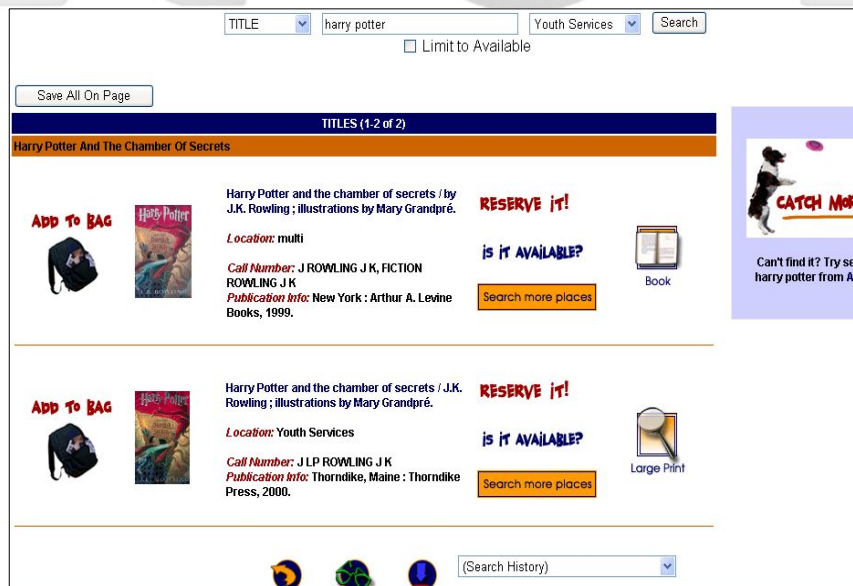
로스앤젤레스 공공도서관의 OPAC은 각 서지 레코드에 대하여 Agency, Availability, Copies in Library, Copies Owned 라는 네 개 필드로 구성된 소장정보를 제공한다 이 소장정보는 어느 분관의 어느 부서에 현재 이용 가능한 복본 몇 권이 있고, 그 도서관이 실제로 소장한 복본은 몇 권임을 알려준다. 예를 들어, *Harry Potter and the Chamber of Secrets* (1999)는 Chinatown Branch(Agency)의 대출창구(CIRC, Availability)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도서관이 소장한 4권의 복본 가운데 현재 1권을 이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소장정보 상단의 ‘완전소장세부사항(Full Holdings Detail)’을 클릭하면, 각 도서관이 보유한 각 카피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보여준다. 여기에서는 Agency, Availability, Call Number, Status(Checked Out, Not Checked Out)의 정보만을 포함하여, 특정 도서관의 특정 카피가 청구기호가 무엇인지, 현재 대출상태인지를 알려준다. 이 로스앤젤레스 공공도서관의 OPAC이 중앙도서관뿐만 아니라 팔십여 분관의 소장정보까지 포함하고 있는 종합목록인데, 서지 레코드에서 자료에 대한 상세한 서지정보를 이미 제공하고 있으

24) IFLA Group on the Functional Requirements for Bibliographic Records, 전거서.

므로, 소장정보로는 소장 장소, 각 카피의 식별정보(청구기호) 및 대출상태만을 제공하는 것으로 충분함을 보여준다.

뉴욕 공공도서관에서 동일한 책의 예를 보면, 우선 간략 디스플레이에서 서지정보와 더불어 “Holdings: Reservable Copies: 354 Number of Holds: 2” 와 같은 형태로 도서관 전체의 소장정보를 보여준다. 한편 완전한 서지정보 아래에 Copy/Holding Information으로서 Location, Call Number, Collection, Shelving Location, Item Type, Status의 여섯 개 필드로 구성된 상세한 소장정보를 보여준다. 354 카피 전체에 대해 각각, 예를 들어, 이 카피가 어느 분관(예: Belmont Branch)의 무슨 컬렉션에 비치되었으며(예: J Fiction), 배가장소는 어디이고(예: Children's Room), 자료유형은 무엇이며(예: J Paperback), 어떤 상태인지(예: Checked in, Lost, Shelving cart, Due 22 May 06, Missing inventory 등)의 소장정보를 제공한다.

웨스터빌 공공도서관의 어린이용 OPAC은 <그림 7>과 같이 서지 레코드의 간략 디스플레이에서 *Is it Available?*을 클릭하면 상세한 서지 레코드 디스플레이로 가서 소장정보를 볼 수 있게 한다. 소장정보는 Location, Call #, Status, Last Checked In의 네 개 필드로만 구성되어, 각 카피가 어디에 있고(예: Juvenile Fiction), 청구기호가 무엇이며(예: J Rowling JK), 어떤 상태인지(예: Available, Due 06-16-06 등), 마지막으로 언제 대출되었는지(예: 05-19-06) 정도를 알 수 있게 한다. 이 도서관의 일반용 OPAC에서도 동일하게 네 개의 필드만으로 구성된 소장정보를 제공한다.



<그림 7> 미국 웨스터빌 공공도서관: 어린이용 OPAC의 서지 레코드

V. 맺음말

본 연구에서 서울특별시립 어린이도서관, 청주기적의도서관, 용산도서관 어린이도서관의 OPAC을 검토한 결과는 결국 KOLAS 시스템의 OPAC 모듈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되었다. 그 이유는 용산도서관 어린이도서관이 초기 간략검색 창을 한 줄로 간략하게 만들어 주고, 사용하는 용어와 외형을 약간 수정하였을 뿐, 이들이 모두 KOLAS OPAC의 검색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보여주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 가운데 일부는 어린이도서관에만 고유하게 적용 되겠지만, 대부분은 KOLAS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일반 공공도서관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여겨진다:

- ‘간략검색’ 화면이 간략하지 않음: 네 개의 검색 입력창과 여섯 개의 제한 필드 입력창
- ‘도움말’을 전혀 제공하지 않음
- 일관성이 없거나 적절하지 않은 필드명이나 검색용어 등이 사용됨 :
 〈예〉 ‘원문정보’ 필드가 VOD, 원문, CD 검색을 의미; ‘자료구분’이 검색창과 디스플레이에서 달리 사용됨; 분류부호/분류기호, 간략검색/단순검색, 표제/서명, 출판사/발행자 등의 용어 혼용
- ‘상세검색’ 화면에 어린이도서관에서 불필요한 검색 및 제한 기능을 붙여놓음
 〈예〉 다국어 입력창, 한국대학부호, 한국정부기관부호 등
- ‘상세검색’ 화면에 작동하지 않는 검색 및 제한 기능을 붙여놓음
 〈예〉 한국정부기관부호, 한국대학부호, 본문언어, 요약문언어 등
- 검색결과와 간략 디스플레이가 간략하지 않음: 열한 개의 필드
- 간략 디스플레이에서 사용되지 않는 필드를 제공함: 목차, 초록, 콘텐츠 필드 등
- 간략 디스플레이에서 필드와 데이터의 띄어쓰기가 적절하지 않음
- 목록 메뉴, 검색 옵션 및 서지 레코드 필드 명칭 등에 도서관 전문용어를 많이 사용함
- 검색결과가 많을 때, 화면 이동과 결과 내 디스플레이 건수 조정이 어려움
- 서지 레코드 디스플레이의 소장정보에서 불필요한 필드를 제공함: 목차, 초록, 콘텐츠 등

최근 발전된 통합 도서관 자동화 시스템이 제공하는 OPAC의 표준 기능 가운데 하나는 도서관이 자관의 이용자 요구나 행태에 따라 레코드 화면이나 디스플레이를 요구에 맞추어 조정할 수 있는 것²⁵⁾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살펴본 도서관들은 어린이들을 주이용자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OPAC의 기능이나 디스플레이 등을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어린이들의 행태나 요구 조건에 맞추어 제공하지 않는 이유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우선 현재 국내 공공도서관 자동화 시스

25) Breeding, 전개논문.

템을 독점하고 있는 KOLAS 시스템이 이 같은 조정기능(customization)을 허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KOLAS 시스템은 국립중앙도서관이 개발하여 전국의 공공도서관에 보급하면서, 특정한 시스템 회사로 하여금 시장을 독점하게 만들었던 결과물이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을 위하여 다양한 자동화 시스템들이 개발되고 자유롭게 경쟁하는 가운데 발전할 가능성 및 그에 따라 도서관들이 여러 시스템들을 비교하고,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차단되었고, 독점체제에 안주한 KOLAS 시스템은 개별 도서관을 위한 조정기능 같은 것을 제공할 필요성을 못 느꼈을 수도 있다.

또 다른 이유는 지금까지 도서관들이 구체적으로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대부분의 공공도서관들이 선택의 여지없이 KOLAS를 사용하면서, 이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을 디폴트로 받아들이고, 무엇을 요구해야 할지 몰랐을 수도 있다. 더욱이 서울특별시립 어린이도서관을 비롯한 몇 개의 어린이도서관을 제외하고는 이제 막 생겨나기 시작했을 뿐인 어린이도서관들이 어린이 이용자들의 요구와 행태를 반영한 OPAC의 개발이나 발전을 요구할 겨를이 없었을 수도 있다.

미국도서관협회가 간행한 도서관 기술보고서에서 Boss는 현재 대부분의 도서관 포털이 이용자나 이용자 계층별로 요구에 맞추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공도서관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어린이, 어른 및 숙련된 이용자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였다²⁶⁾. 또한 현재의 디지털 환경에서 도서관은 다양한 정보자원과 포맷의 콘텐츠를 수용하고 조직하며, OPAC은 IFLA 지침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이해하기 쉽고, 이용자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구축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²⁷⁾. 국내 도서관들의 OPAC 또한 이 같은 인식을 갖고 다시 한번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위에서 추론해 본 이유가 무엇이든, 현행 KOLAS에 기반한 국내 도서관들의 OPAC은 어린이들을 위해, 그리고 일반 이용자들을 위해서도 미흡한 측면이 많고, 상당한 개선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어린이용 OPAC을 개발하면서 연구한 어린이들의 OPAC 이용행태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국내의 고유한 도서관 환경에서 어린이를 위한 OPAC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정보요구와 정보추구행태를 이해하기 위한 심층적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들의 요구, 행태 및 기대치에 기반한 다양한 어린이용 OPAC이 개발되고, 공공도서관들도 각자의 도서관 환경에 적합한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
- 26) Richard W. Boss, "How to Plan and Implement a Library Portal," *Library Technology Reports*, vol. 38, no. 6 (November-December 2002), pp.1-66.
- 27) Bente Dahl Rathje, et al, *Designing and Building Integrated Digital Library Systems -- Guidelines*, IFLA Professional Report 90,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2005, <http://ifla.org/VII/s31/pub/Profrep90.pdf> [cited 2005. 11. 23]

КСІ